

“환율 높지만 큰 의미 부여 말아야... 달러 유동성 양호”

신현송 한은총재 후보자 첫 출근

“환율-금융불안 직결할 필요 없어
매파·비둘기파 이분법 구분 안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첫 공개 메시지는 금리 인상·인하 방향 자체보다 외환·금융시스템이 충격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에 더 가까웠다.

중동 사태를 한국 경제의 단기 최대 리스크로 지목하면서도 높은 환율 수준 자체보다 달러 유동성이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적어도 첫 메시지에서는 ‘금리 방향’보다 ‘시스템 체력’을 먼저 점검하겠다는 뉘앙스를 남겼다.

31일 신 후보자는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첫 출근길 문답에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중동 사태”라며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에는 상승 압력이 있고 또 경기는 하방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물가 상방과 경기 하방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는 질문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31일 서울 중구 한화금융플라자에 차려진 인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는 “위낙 불확실성이 많아 예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가장 눈에 띈 것은 환율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신 후보자는 “환율 레벨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된다”며 “달러 유동성에 관한 지표들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했다. 예전처럼 환율 수준을 곧바로 금융불안과 직결시키기보다, 외화 유동성과 자금 흐름, 금융시

스템의 흡수력을 함께 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런 문제의식은 지금 한국은행이 마주한 정책 환경과도 맞닿아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면서 성장 회복을 지원하되 물가 흐름과 함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은은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매파’ 평가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매파나 비둘기파 이렇게 이분식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 전체의 흐름과 금융제도, 실물경제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파악한 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청문회 전부터 특정 성향을 앞세우기보다, 복합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읽는 접근을 강조한 셈이다.

이 같은 색채는 신 후보자의 이력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국제결제은행(BIS) 경제자문역을 지냈고 2025년 1월부터는 통화경제국장을 맡았다. 아울러 프린스턴대 교수, 옥스퍼드대-런던정경대 재직, 2010년 한국 대통령 선임보좌관으로서 금융안정 정책과 G20 의제 수립에 참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의 지명 설명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신 후보자 지명

브리핑에서 그를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소개하며, 중동 사태로 국제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책임자라고 설명했다. 오늘 신 후보자가 내놓은 첫 메시지도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을 한 축에서 보겠다는 ‘균형론’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결국 신현송 체제의 첫 시대는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의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중동발 공급 충격과 고환율 변동성,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대외 유동성 문제를 어떤 프레임으로 읽고 시장과 소통하느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신 후보자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경로”라며 중요한 정책 요소라고 평가했다. 다만 점도표나 포워드가이던스 유지 여부 등 구체적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후보자 입장에서는 답변하기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이자폭탄’ 차주, 금리인하 요구권에 관심

주담대 금리 상단 7% 넘어서
당국, 금리인하 자동신청 서비스 도입
작년 은행권 수용률 30% 채 안돼
“금리 인하보다 리스크관리 우선”

주요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3년 5개월 만에 연 7%를 넘어섰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간 전쟁으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시장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차주들의 ‘금리인하 요구권’이 허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고정금리는 연 4.41~7.01%로 집계됐다.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선 것은 2022년 10월 이후 41개월 만이다.

금리가 상승한 이유는 시장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고정금리 산정 기준

인 5년만기 은행채 금리는 중동 사태 전인 2월 27일 3.572%에서 이달 30일 4.079%로 0.507%포인트(p) 상승했다.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졌다. 중동 지역 긴장감 고조로 유가는 폭등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차주들의 시선은 ‘금리인하요구권’으로 향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당시보다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개선된 차주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금융회사는 심사를 거쳐 가산금리를 낮추는 방식으로 금리를 조정한다.

금융당국은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도입했다. 오픈뱅킹 기반 앱에서 한 번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정보 변동을 감지해 금리인하를 자동 신청하는 서비스가 도입됐다.

다만 자동 신청 경리가 넓어졌다고 해서 실제 금리 인하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은행은 차주의 신용 변화가 충분하지 않으면 대부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히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더 보수적으로 심사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주요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금리인하 요구권 평균 수용률은 각각 20.6%, 32.3%에 그쳤다. 신청자 10명 중 7명은 원하는 금리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금융권 관계자는 “조달금리가 오르는 속도가 빨라 금리 반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보다 리스크 관리가 우선 순위다”라며 “금리인하요구권 문의를 늘고 있지만 실제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케이스는 제한적이다. 신용 개선이 뚜렷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보험사기 적발액 1조1500억 ‘사상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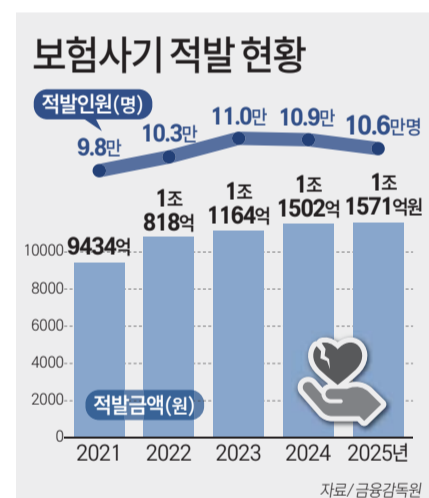
금감원, 전년대비 69억 0.6% 증가
적발 인원 줄었지만 건당 규모 커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 1500억원을 넘어서며 또다시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적발 인원은 줄었지만 사기 건당 규모는 더 커졌고,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가 연루된 조직형 사기가 당국의 새 단속 타깃으로 떠올랐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571억원으로 전년대비 69억원(0.6%) 증가했다. 반면 적발인원은 10만 5743명으로 3245명(3.0%) 감소했다.

금감원은 적발금액은 늘고 인원은 줄어 개별 사기 건당 금액이 커지는 보험사기 고액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5724억원으로 전체의 49.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장기보험이 4610억원으로 39.8%를 차지했다. 두 종목이 전체 적발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 사고내용조작이



6350억원으로 54.9%에 달했고, 허위사고가 2342억원(20.2%), 고의사고가 1750억원(15.1%)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병원을 통한 보험사기 확산이 두드러졌다. 사고내용조작 유형 가운데 병원이 자동차보험을 악용해 치료비를 과장 청구한 보험사기는 273억원으로 전년대비 233억원 늘어 582.5% 급증했다. 금감원이 이번 자료에서 병원 주도 실손보험·자동차보험 사기를 별도 대응 과제로 제시한 것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다.

/김주형 기자

2월 임대차 거래 10건 중 7건 ‘월세’

주택 매매거래 5.8건 전년비 14% ↑
전·월세 거래량 25.3만건 8.9% 줄어

월세 비중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임대차 거래 10건 가운데 7건은 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2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5만 778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했다. 수도권은 2만9459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6%, 서울은 946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3% 늘었다.

전·월세 거래량은 2월 총 25만342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8.9% 감소했다.

특히 전세 거래량이 7만630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나 줄었다. 반면 월세(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 거래량은 17만711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늘었다.

이에 따라 월세 거래의 비중은 68.3%로 전년 동기 대비 6.9%포인트(p) 높아졌다. 월세 비중은 2월 누적 기준으로 지난 2022년 47.1%에서 ▲2023년 55.2% ▲2024년 57.5% ▲2025년 61.4% ▲2026년 68.3% 등으로 빠르게 상승했다.

공급지표는 작공은 늘었지만 인허가와 준공은 줄었다.

지난 2월 수도권 착공은 6394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43.7%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3031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수도권 인허가 물량은 9210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31.5% 증가했지만 서울은 2591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46.5% 감소했다.

준공은 수도권이 5711가구로 전년 동월 대비 46.4% 감소했고, 서울도 전년 동월 대비 25.4% 감소한 1703가구로 집계됐다.

분양 시장은 회복세를 보였다. 전년 동월 실적이 없었던 수도권은 7253가구가 분양을 진행했고, 서울 역시 2월 876가구를 분양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한은행, 연금수령 고객 헬스케어 서비스

맞춤형 헬스케어 기업 GC케어 협력

신한은행은 맞춤형 헬스케어 기업 GC케어와 협력해 연금수령 고객을 위한 ‘신한 SOL메이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2026년 3월부터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보훈·사학 등) 또는 신한은행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신한은행 계좌로 처음 수령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GC케어는 복잡자활당

스의 자회사로, 전문의료진의 건강상담, 대형병원 진료예약, 간병인 지원서비스 등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전문기업이다.

연금수령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대학병원 진료예약 ▲건강검진 예약대행 및 우대서비스 ▲중증질환 환자 대상 간호사 진료 동행 및 차량 에스코트 등으로, 고객은 전문 의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